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

나 운 영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것은 분명히 바흐, 베토벤, 바그너, 드뷔시, 쇤베르크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물론 그들은 대체로 장수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으나 모차르트, 슈베르트, 쇼팽 등과 같이 요절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 것일까?

세계적 현대(?) 작곡가 시벨리우스는 작년에 91세의 생애를 마쳤다. 나라에서는 호반에 별장을 지어 주었고 행여 작곡하는데 지장이 되지나 않을까 하여 그의 저택 부근은 음향관제를 실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연금을 수 십 년간 주었던만 그는 제7심포니를 완성한 이후로 30년간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무위도식(?)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혹시나 인생이 길었던 것이 아닐까?...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 이것은 비단 시벨리우스의 경우만이 아니라 나의 경우에 있어도 아니 여러분의 경우에도 그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들의 나이가 많으나 적으냐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각까지 이루어진 역사적 작품이 있느냐 없느냐 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 일해야 할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니—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예술이 인생보다 짧을 리야 있으련만 그래도 나에게서는 이와 같은 역설이 다시 없는 채찍이 되는 듯싶다.

< 1958. 4. 연세춘추 >